

운전면허 소지자 43% ‘女’… 손보사, 여성 특화상품 경쟁

여성 운전자 비율 꾸준히 상승
건강관리 등 고려 성장성 높아
손보사 앞다퉈 특화 보험 선보



손해보험업계가 여성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유토이미지

보험업계가 ‘여심(心) 잡기’에 나섰다.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가 여성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여성 운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특화 운전자·자동차 보험을 선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466만명이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약 3413만명) 가운데 43%가 여성이다.

아울러 여성 운전자 비율은 1983년(5.8%) 이후 30여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 운전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손보사들은 여성 운전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앞다퉈 여성 특화 운전자·자동차 보험을 선보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4일 ‘한화 여성 플랜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을 가장 잘 아는, 여성 전문 보험사로 브랜드화 중이다”라며 “나채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여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6월 ‘라이프플러스 펌테크(Femtech·여성 헬스케어 기술)연구소도 설립했다”고 말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여성 전용 상품 ‘레디 포(For) 레이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레디 포 레이디 운전자보험은 보장 내역을 여성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특화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월 여성을 위한 ‘W-Drive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을 고려해 성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데 여성 운전자 보험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출시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여성 특화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남성보다 능동적인 여성의 건강관리와 의료지출 습관을 고려했을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해외 펌테크 기업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성은 남

성보다 예방 목적의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이다.

여성은 남성 대비 평균 수명이 길고 임신·출산 등 높은 의료지출의 특징을 보인다 평가했다. 또한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2030년 펌테크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보험업계의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여성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보험연구원의 펌테크 전망 발표에 따라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여성 전문 종합보험까지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경남은행 PF대출 횡령규모 1300억 아닌 3000억

77차례 횡령할 동안 점검 등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13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규모로 보면 역대 최고치다.

대출서류 위조 등 무려 77차례에 걸쳐 거액을 횡령할 동안 경남은행은 여신관리와 인사, 사후점검까지 내부통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PF 부문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

월까지 PF대출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나 본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것이 1965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지만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렸다. 기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역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번 거액의 횡령사고는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내부통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마비됐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이 지주로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본점에 대한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먼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만 가능하도록 통제하지 않았다. 대출을 실행하거나 상환할 때도 모두 차주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

인사부문에서도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지

만 명령휴가는 한 번도 없었으며,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도 유명무실했다. 사후에도 여신 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응도 미흡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초에 인지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은 석 달이 지난 7월말에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와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로나 대응·고유가 영향에 정부·공기업 100조 적자

한은, 2022 공공부문 계정 발표
95.8조 마이너스… 3년 연속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을 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27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공기업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총지출 중 공기업 중간소비와 기타경상이전소비가 늘었다”며 “2022년은 방역관련지출, 2021년은 백신접종 관련 지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늘며 기타경상이전 소비가 증가했고, 금융공기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해 지출이 늘

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 수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관련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정부서비스 생산비용, 건강보험 급여비)과 기타경상이전(민간 지원금) 등이 증가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9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방역등으로 지출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80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전년(52조2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 News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가입자 추가할인 혜택 제공

우리카드가 카드의정석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 해외 항공권 및 호텔 예약 플랫폼서 할인

우리카드는 독자카드 신상품인 카드의정석 3종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최근 5개월간 우리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카드의정석 에브리원’카드를 이용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4%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해외 목표 달성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외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추가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신규 자동납부 시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항공권 최대 15% 할인행사를 선보인다. ‘에브리 마일 스카이프스’의 경우, 해외결제 수수료 1.3%를 면제한다. 해외가맹점 이용 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 스마트싱스 파인드 IoT 카드 협력계약

KB국민카드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진출했다.

◆ 신용카드에 전자기기 접속

KB국민카드는 아멕스카드 및 삼성전자와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oT 카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착용컴퓨터 등을 전 세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위치 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에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BLE, Bluetooth Low Energy)을 탑재한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연동해 위치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카드위치 확인 기능(약 7일간의 위치기록 포함) ▲카드하단 스마트버튼으로 핸드폰 찾기 ▲기기간 알림제공 등이다. 무선충전을 사용 반복 재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